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젊은이들이 떠나고 시골에 남은 건 노인들, 공허하게 짓는 개들, 여기저기 펠럭이는 페비닐, 합부르 나뭇구는 농약병뿐이다. 시골은 조개무지, 고인돌, 옛사람의 주거지만 남은 유적이거나 다름없었다. 촌락공동체가 깨지고, 마을엔 스산한 적막감이 감도는 시골에서 나는 10년 넘도록 혼자 살았다. 나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시골에서 집을 짓고 생활을 꾸리며 혼자 사는 자의 슬픔과 기쁨을 겪었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선거가 끝났다.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들이 있고, 졌다고 좌절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긴 것이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승패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겼다고 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것도 아니다.

기고



김정민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직'(正直)이란 '마음(心)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은 해석한다. 부연하면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이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이란 바로 머리(頭)에서부터 시작된다. 머리는 자기에게 말린 온몸을 위해 생각하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머리다. 손발의 움직임에 대한 옳고 그름은 모두 머리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부당하게 나타내면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나는 이상한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장자와 노자를 읽고,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들춰보거나 그 어렵다는 들뢰즈의 책을 꾸역꾸역 읽었다. 그 외로운 날에 독서가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 목전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무용한 독서였다. 그것은 영원에 가 닿으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닮았다. 독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어쩌면 그것은 침묵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방문은 이상했다. 그이가 나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이는 내게 썼다는 편지를 읽어 주고 떠났다. 내게 썼다는 편지인데, 내게 건네주지는 않았다. 그게 전부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이가 그 뒤로는 찾아온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겪은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

리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벌어진 현상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한다.

수 있으며,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받아들여자는 제안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곧 경청과도 같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 그 입장이 되어 들어 주고 받아 주자는 것이다.

社說

'국가 균형 발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다

역대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설치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대책단을 구성하고, 특위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재정과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에 집중됐다. 실제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사 결과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지방재정의 64.1%가 수도권(1382조 원)과 영남권(1052조 원)에 쏠렸다. 반면 호남권에는 600조 원이 배분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은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호남은 인구·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충청권에 치이며 최악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코앞...장애인 투표 환경 개선 급하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지며 투표가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불편한 투표 환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광주 지역 투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됐다. 두암1동 동강대 체육관과 문흥중 등도 출입구가 좁거나 경사가 급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 활동 조사에서도 모니터링 대상 23건 가운데 65%인 15건에서 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기표대가 높아 어렵게 투표소에 갔더라도 투표하기가 힘들었고 선거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한 발달장애 유권자도 많았다.

Advertisement for 'No Equal Drum' (無等鼓)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social inequality and accessibility.

올해 들어 전국 지방마다 공통으로 다뤄지는 뉴스가 있다. 바로 꼴벌 집단 실종 사건이다.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자연 재앙의 전조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도 꼴벌 실종 사건이 나오는데,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신의 분노로 묘사된다. 오르페우스와 결혼한 에우리디케가 산책을 나갔다가 자신을 쫓아오는 아리스타이오스를 피해 도망치던 중 뱀에게 물려 죽는다. 그리스 최고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며 저승 세계까지 내려가, 죽음의 신 하데스를 감동시켜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하지만 '저승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뒤를 돌아보라는 안 된다'는 경고를 어기는 바람에, 결국 아내를 데려오지 못해 비탄에 빠져 죽고 만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일화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아리스타이오스에 대한 신의 저주이다. 양치기이자 꼴벌치기를 하는 아리스타이오스가 에우리디케의 미모에 빠져 차근차근 리는 바람에 애만 사람이 죽자 분노한 신이 벌떼를 모두 죽였다는 것이다. 아리스타이오스는 해결책을 찾아 헤매다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로부터 비책을 듣는다. 프로테우스는 에우리디케의 죽음을 신들이 노해서 벌떼가 전멸했으니 '황소 네 마리 양 송아지 네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검은 양 한 마리를 슬픔에 빠진 오르페우스에게 보내라'고 알려 준다. 아리스타이오스가 비책을 행하니, 꼴벌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